

# 지적 호기심 이끄는 다양한 문화인류서들

스테디셀러로 자리 굳혀... 국내 전문필진의 참여 요구돼

인류역사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최근 몇년 사이에 크게 늘고 있다. 인류학과를 개설한 대학이 몇 안되고 학문적 연구성과들의 거의 대부분을 서양지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류문화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은 이제 단순히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 보다 내용있는 문화이론서를 요구하고 있는 듯하다.

이를 반영하듯 대형서점 인문분야의 베스트셀러에는 인류문화를 다룬 책들이 다수 진입해 있다. 문화인류학 계열의 책들이 서가의 한 자리를 메우고, '문명사, 풍속사, 전쟁사'라는 이름을 단 책들이 특설코너로 꾸며지기도 한다. 《세계풍속사》《물질문명과 자본주의》《문화의 수수께끼》《음식문화의 수수께끼》《식인과 제왕》《작은 인간》《식인문화의 수수께끼》《배꼽티를 입은 문화》《질투하는 문명》《문화의 이해》'시공 디스커버리총서'의 몇몇 책들은 최근 독자들의 호응이 높은 관련서들이다.

## 지속적 기획소재 제공

문화의 다양한 현상을 다룬 책들이 대중적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은 출판의 내실있는 돌파구로, 지속적인 기획소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한가지 긍정적인 의미는 상업적인 흥미 위주의 도서와는 달리, 일반인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으면서도 지식과 무게있는 의식을 제공하는 교양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책의 홍수 속에서도 지적 공백상태를 느끼는 현대인에게 충실한 독서의 기쁨을 맛보게 한다는 것이 출판편집인들의 분석이다.

국내 스테디셀러 저자로 자리를 굳히고 있는 미국의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의 저서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문화생태학적 입장에서 모든 기이한 문화도 자연환경에 적응하려는 합리적 시도라고 강조하는 《문화의 수수께끼》(한길사)와 《음식문화의 수수께끼》(한길사)는 이미 83년에 첫 출간되었으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대중들의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두 종의 책은 각각 30쇄, 10쇄의 발행을 거듭했고 지금도 《문화의...》는 하루 200부에 가까운 주문을 받는다. 마빈

## 인류문화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보다 깊이있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인간의

본성과 기원에 대한

탐구가 자칫 인류사의 흥미거리로

빠지는 점만 경계한다면,

다양한 인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의미있는 기획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해리스의 인기는 새로 출간된 두 종의 책 《작은 인간》(민음사)과 《식인과 제왕》(한길사)에도 지속돼 14쇄, 5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두 책은 인류와 관련된 102가지 소재를 다룬 에세이류의 문화론과 인류의 문명사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통사이자,

이러한 문화인류서에 대한 관심은 사회과학자들의 붐이 쇠퇴하면서 인문교양서를 찾는 독자층이 확대된 현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길사(대표 김연호)의 기획·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우씨는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문화적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승해 이런 인문교양서를 찾는 독자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길사측은 장 디뷔뉴의 《축제와 문명》을 4월경 발간하고, 이론적 뒷받침을 위해 말리노프스키나 마가렛 미드 등 인류학자들의 고전도 번역출간할 예정이다.

민음사(대표 박맹호) 편집부의 송교섭씨는 "마빈 해리스로 대표되는 문화인류서의 대중적 인기의 원인은 내용성을 가진 에세이류의 새로운 글쓰기 방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역사서나 과학철학서에 비해 비중있는 내용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간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문화인류학이란 '텍스트'라는 게 따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한 다양한 문화현상의 일반화가 중점임을 강조하면서, 이 분야에 '숨겨진 역사이야기'로서의 고급교양서와 우리나라를 현지조사한 '지역문화총서'를 기획하고 있다고 전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문화인류' 관련서들에 독자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다. 주술로부터 종교를 거쳐 과학에 이르는 세 단계의 진화과정을 제창한 20세기 초반의 유명한 인류학자 제임스 프레이저의 《황금의 가지》나 상이한 문화의 비교연구를 통해 인류학적 시야를 넓힌 루스 베네딕트의 《문화의 패턴》(까치)은 오랫동안 문화인류학을 이해하는 입문서의 역할을 해왔다. 전자는 이번에 170여 장의 도판을 곁들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되어 《그림으로 보는 황금가지》(까치)로 새롭게 출간됐다.

이외에 국내저서로 문화이론의 사상과 문화비교를 서술한 인류학자 전경수 교수의 논문을 모은 《문화의 이해》(일지사)가 있으며 '시공디스커버리총서'의 《그리스 문명의 탄생》《아즈텍 제국》《고대 로마를 찾아서》나 '대원동서문화총서'의 《환각제와 문화》《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 등도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문화인류서들이다.

## 삶의 현상 자체가 문화

한편 물질문명의 역사를 일상사 속에서 탐구, 현대문명의 다양한 표정을 짚어내는 풍속사 성격이 짙은 찰스 패터너의 《배꼽티를 입은 문화》(자작나무)와 와타히카 히로시의 《질투하는 문명》(자작나무), 폭력과 이국적인 관습이 결합된 식인풍습에 관한 포괄적인 역사를 기술한 한스 아스케나시의 《식인문화의 수수께끼》(청하)는 인류문명

사의 흥미있는 소재와 이야기를 묶어낸 책들이다.

자작나무(대표 송인석) 편집장 김미숙씨는 "고고학이나 문화인류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당분간 이런 류의 교양서에 치중할 예정이다. 사회의 거대사안이 점차 미시적으로 세분화되면서 개인적 관심사가 무척 다양해졌다고 보는데, 이 기획물들이 독자개발에 성공했다면 보다 깊이있는 내용으로 독자들을 성숙시키는 일이 남은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문웅(서울대 인류학과) 교수는 "인류학의 과제를 실제 문화현상에 적용,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낸 인류문화서들이 인류학을 저변화대시킨 공헌을 인정하더라도, 인간의 본성과 기원에 대한 인류학적 탐구가 자칫 인류사에 대한 흥미거리로 빠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경계할 것"을 당부한다.

문화인류서들의 출간은 사실 새삼스럽지 않을 만큼 오랜 기간 독자들의 의식 속에서 성숙돼왔다.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의 현상 자체가 문화이므로 생활인에서부터 학자나 전문가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의 직접적인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일반 독자에게는 건강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연구자나 기획자에게는 마르지 않는 소스인 '문화인류' 서에 대한 전문가들의 노력과 국내 필진들의 참여가 필요하리라는 것이 출판기획자들의 중론이다.

—이정민 기자